



ETSI 제39차 총회(GA)

박종봉 • TTA 표준기획본부 전임연구원

1. 회의 개요

금번 회의는 2002년 1차 총회로 예년과 같이 Nice(France)에서 개최되었다. 통상 총회(GA)는 전략 워크숍(Strategic Workshop)과 병행하여 개최되나 금번 회의는 연초('02. 2. 26 ~ 27)에 EMTEL(Emergency Telecommunications) 워크숍이 개최된데 기인한 듯 추가 워크숍 없이 총회만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특이한 사항으로는 ETSI 총회에서 정책적 issue를 넘어 기술 issue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표준화 대상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ETSI로 하여금 표준화 대상기술에 대한 보다 깊고 광범위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ETSI는 지난 1996년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하여 기술총회(TA)를 폐지하여 기술 issue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에 일임하고, 총회(GA)는 정책적 전략적

issue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리에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총회에서 기술 issue를 다루자는 이러한 논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것이 갖는 영향력은 무엇인지, 보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회의 논의 및 결과를 회의 의제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주요 논의 및 회의결과

가. 신규회원 승인

2001년도 연말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37개 회원사 회원자격의 삭제를 결의하며, 신규회원 정회원 25개사, 준회원 19개사, 그리고 업저버 3개사가 회원으로 승인됨으로써 2002년 4월 현재 ETSI의 회원은 총 913개 회원이며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음.

<표 1> ETSI의 회원현황(2002. 4. 현재)

Total membership			
	Full Members	Observers	Associate Members
Membership as of 31/12/01	654	47	173
Membership after GA 39			
Increases:	+ 26	+ 3	+ 19

	Full Members	Observers	Associate Members
• New Members GA39	+ 25	+ 3	+ 19
• Transfer	+ 1		
Decreases:	+ 8	0	- 1
• Transfer			- 1
• Withdrawal	- 8		
TOTAL	672	50	191
Total membership@GA39	672 + 50 + 191 = 913		

나. 이사회 보고

- 특별위원회 ETSAG (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 Awareness Group)의 명칭을 IMPACT (International Market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활동을 강화할 것을 밝힘 (구체적 활동에 대한 ToR은 http://portal.etsi.org/impact/impact_tor.asp을 참조).
- IMPACT는 ETSI의 홍보활동 강화차원으로 재편된 조직으로서 금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Division의 Head인 Mr. frederic SALMON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ETSI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을 공동모색하자고 제의해왔음.
- 이사회 산하의 Ad hoc 그룹 개설 결의
 - 총회 회기 사이의 재무와 관련한 이사회, 재무위원회 및 사무총장의 책임 재조정을 위한 Ad hoc 신설
 - 기술 조직 (TO)과 작업 계획 (Work Programme) 관점에서 이사회 권한 재조정을 위한 Ad hoc 신설
- 3gpp와 관련한 EU내 연합체 결성(The

European Friends of 3GPP)

<http://www.eurofriends3.org/>

○ 이사회 규모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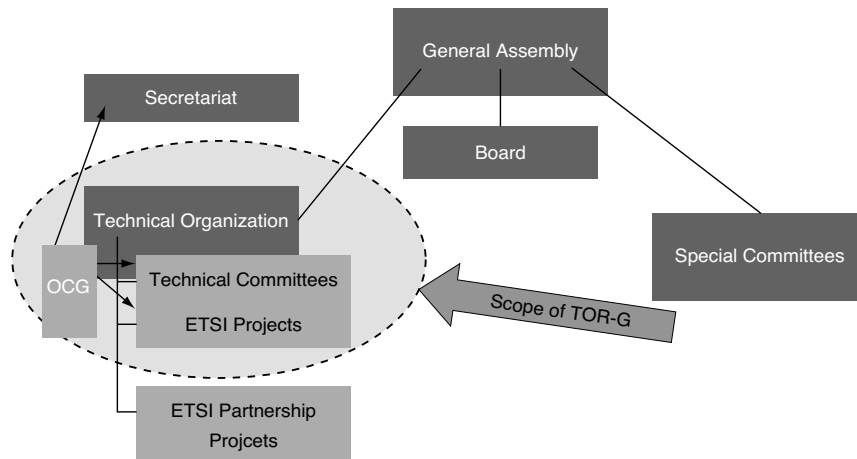
- 이사회 규모를 기존 25명에서 User group 및 CEEC 대표자, 그리고 중소기업(SME)을 포함하는 30인 이내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승인되었음.

다. TOR-G 보고

- 2002년 전략 가이드라인 9 (Strategic Guideline 9)와 관련하여 결성된 ToR-G는 TO의 조직개편을 위해 이사회 산하의 오픈 그룹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음.
- ToR-G의 TO 조직개편 범위는 기존 TO 중 3GPP와 MESA와 같은 EPP (ETSI Partnership Projects)를 제외한 TC (Technical Committee) 및 EP (ETSI Project)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OCG (Operational Co-ordination Group)의 권한과 의무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그림 1] 참조).
- TO의 현 상황 < 표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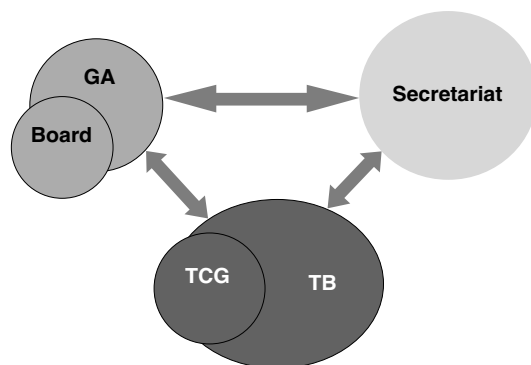
Pros(찬성)	Cons(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개발을 위한 유용한 도구 - 사무국의 적극적 지원 - ETSI의 브랜드 인지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와 TC간의 차별적 작업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 보다 효율적인 표준 개발을 위한 개선의 여지가 존재 - 시장 상황변화에 따른 표준화 참여양상의 변화(국제화, 기술융합, 포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많은 TO가 폐지됨

Pros(찬성)	Cons(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 참여의 감소 ETSI 회원사의 지속적 포럼 결성 OCG의 권한과 기능의 재검토 필요



[그림 1] TOR-G의 활동범위

- 향후 진행계획
 - EP의 구분 삭제 및 EP의 TC 진화 가이드라인 수립
 - OCG의 권한과 기능검토
 - TCG(Technical Coordination Group) 신설 ([그림 2] 참조)



[그림 2] TCG의 활동 예상범위

라. 사무총장의 진도보고

- ICTSB(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tandard Board)는 2003년도 3월 장애인에 위한 표준화 착수를 목표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Standards validation process의 하나인 Plugtest는 비용 중립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나, 후원 프로그램을 정리화하여 행사 참가비를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자는 제안을 승인함.
- CD를 통한 ETSI 개발 결과물 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80,000Euro라는 비용을 발생하고 있어 CD를 통한 ETSI 결과물 판매증지를 승인요청하여 이를 의결하였음.
- 표준 대상기술이 급격히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GA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다분히 정책

적이며 전략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몇몇 회원사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음. 차기 총회에서는 기술적인 사항을 총회에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지를 워크숍 topic으로 정하여 이를 추진키로 결의하였음.

마. 재무위원회 보고

- dept collecting agency를 도입하여 분담금 채납 회원사로부터 분담금 납부를 유도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ETSI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모든 미납회원이 동일한 상황이 아니므로, case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반론과, 사무국을 중심으로 현재 채납 분담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를 묵과할 수는 없다는 양측의 주장이 있어 6개월간 두가지 시스템, 즉 dept collecting agency를 통한 납부유도와 기존과 같이 사무국을 통한 납부유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차기 총회에서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결정토록 함.
- 2001년 잉여자금을 회원사의 분담금 UoC당 감가(458Euro)를 제안하여 승인됨.
- 비영리 사용자기구(not for profit user association)의 UoC를 6000Euro에서 2000Euro로 감소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인하고 관련된 ETSI 정관(Article : 1.2.2, 1.2.3, Annex 2§10) 개정 승인.

3. 기타 및 참가소감

특별위원회 IMPACT의 아시아 division Head의 제안은 TTA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기회라는 긍정적 측면과 표준화 시장에서의 유럽세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39차 총회 참석에서 느낀 소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ToR-G가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TC가 과연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이와 관련한 향후 추진방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재 도입을 검토중인 TCG가 기존 1996년 ETSI의 대대적 조직개편에서 폐지한 TA (Technical Assemble)의 다른 형태의 실체로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ETSI 총회는 정책적 및 전략적 이슈에 보다 집중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술적인 사항은 이사회 또는 OCG 등에서 논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차기 ETSI 총회의 워크숍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논의되고 결론지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ICTSB는 2003년도 3월 장애인을 위한 표준화 착수를 목표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TTA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

